

2010년 북미 3D 극장영화 시장통계 분석

2011. 5. 30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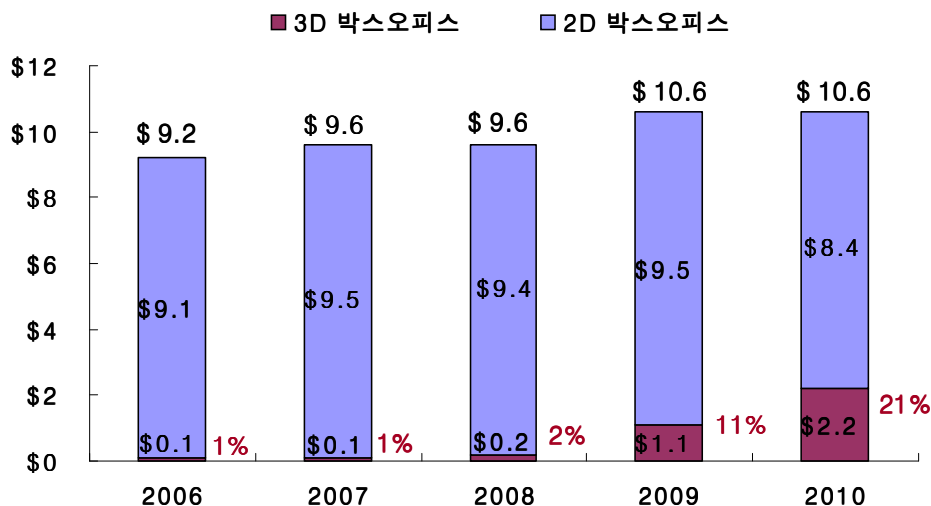
2010년 북미 3D 박스오피스 매출은 21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고, 3D 개봉 영화 총 25편 중 11편이 박스오피스 Top 20에 진입하는 등 전체 박스오피스 흥행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iefing

2010년 북미 박스 오피스 시장 결산

- 2010년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북미 박스오피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 하락한 105억 6,000만 달러에 그쳤으나 3D 상영매출은 21억 7,0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시장에서 20.6%의 비중을 차지함
- 3D 상영티켓은 일반티켓에 비해 평균 3.5 달러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리미엄이 3D 상영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해 수익 기여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Figure 1 2006~2010년 북미 영화시장 규모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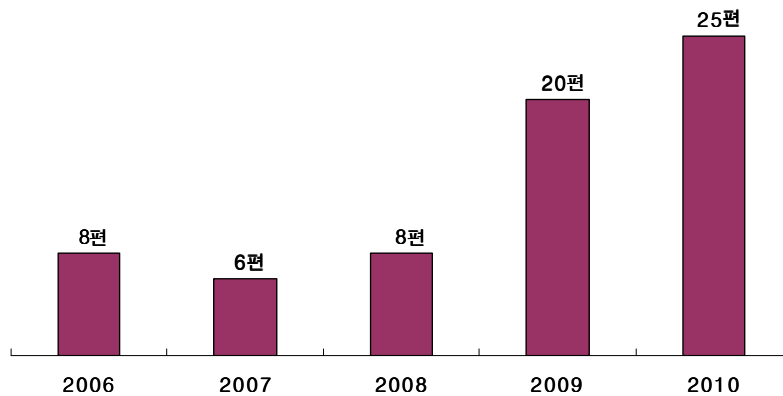
Table 1 2006~2010년 북미 영화시장규모 분석 (단위: 10억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9년 대비 '10년 변화율	'05년 대비 '10년 변화율
3D 영화 시장규모	0.1	0.1	0.2	11.7	21.7	91%	2221%
2D 영화 시장규모	9.1	9.5	9.4	9.5	8.4	-11%	-7%
전체 영화 시장규모	9.2	9.6	9.6	10.67	10.56	-1%	15%
3D 영화 시장 비중	1.1%	1.0%	2.1%	11.0%	20.6%		

자료: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IHS Screen Digest,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2011

- 2010년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 3D 영화는 총 25편으로 전년 대비 5편 증가했으며, 이중 실사 영화는 15편으로 10편에 그친 애니메이션을 추월했음
- 2009년 대부분의 3D 영화가 애니메이션이었던 데 반해 2010년 실사 영화 수가 급증함으로써 스튜디오들의 제작 경향 변화가 관측됨
- 실사 영화의 3D 상영수익 비중은 74.1%로 59.2%에 그친 애니메이션보다 더 높아, 관객들이 실사 영화를 더 많이 3D로 관람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냄

Figure 2 2006~2010년 북미 3D 영화 개봉 편수 추이



자료: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Table 2 2010년 북미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의 3D 매출 분석

구분	타이틀수	3D 매출 (단위: 백만 달러)	2D 매출 (단위: 백만 달러)	전체 매출 (단위: 백만 달러)	전체 흥행수익에서 3D 상영수익 비중	타이틀당 평균 3D 매출(단위: 백만 달러)
애니메이션	10	952.4	655.7	1608.1	59.2%	95.2
실사 영화	15	1221.6	427.2	1648.7	74.1%	81.4
전체	25	2173.9	1082.9	3256.8	66.8%	87.0

자료: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Screen Digest,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2011

- 2010년 개봉된 총 25편의 3D 영화 중 11편이 북미 박스오피스 상위 20위권에 진입했으며, 박스오피스 매출 3억 달러를 상회한 5편의 영화 중 3편이 3D로 개봉되어 3D 영화 열풍을 이어나갔음
 - 2010년 3D 최대 흥행작은 폭스(Fox)사의 '아바타(Avatar)'로 총 매출 4억 7,69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디즈니(Disney)의 '토이스토리 3(Toy Story 3)'이 4억 1,5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음
 - 한편, 3D 박스오피스 시장에서 상위 10개 타이틀이 전체 수익의 74%를 차지함으로써 메이저 스튜디오의 흥행작이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Table 1 2010년 북미 박스오피스 Top 20

순위	타이틀 명(영문 명)	배급사	박스오피스 매출 (백만 달러, 2010년 상영 매출만 집계)	3D영화 여부
1	아바타(Avatar)	Fox	476.9	3D
2	토이스토리 3(Toy Story 3)	Disney	415.0	3D
3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	Disney	334.2	3D
4	아이언맨 2(Iron Man 2)	Paramount	312.1	
5	트와일라잇 세가: 이클립스 (The Twilight Saga: Eclipse)	Summit	300.5	
6	인셉션(Inception)	Warner Bros.	292.6	
7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art1)	Warner Bros.	280.2	
8	슈퍼배드(Despicable Me)	Universal	251.1	3D
9	슈렉 포에버(Shrek Forever After)	Paramount	238.4	3D
10	드래곤 길들이기 (How To Train Your Dragon)	Paramount	217.6	3D
11	베스트 키드(Karate Kid)	Sony	176.6	
12	타이탄(Clash of The Titans)	Warner Bros.	163.2	3D
13	그로운업스(Grown Ups)	Sony	162.0	
14	라퐁젤(Tangled)	Disney	161.3	3D
15	메가마인드(Megamind)	Paramount	143.8	3D
16	라스트에어벤더(The Last Airbender)	Paramount	131.6	3D
17	셔터 아일랜드(Shutter Island)	Paramount	128.0	
18	디아더가이즈(The Other Guys)	Sony	119.2	
19	솔트(Salt)	Sony	118.3	
20	트론: 새로운 시작(Tron Legacy)	Disney	117.5	3D

자료: Rentrak Corporation-Box Office Essentials, CARA

Analysis

2010년 북미 전체 극장 영화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한 3D 영화가 2011년에는 어느 수준까지 그 비중을 높일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바타'가 3D 영화로서 초기효과(primary effect)와 희소성이라는 특수성을 통해 흥행 물이를 한 것과 비교할 때 3D 영화 개봉 편수가 급증한 현시점의 3D 영화는 영화 팬들로부터 '아바타'만큼의 호응을 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3D로 제작된 영화들과 달리 3D 영화 붐에 편승해 2D 영상을 3D로 변환한 영화들은 영화 팬들의 안목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3D 영화의 성장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2011년 3D 영화 매출 비중이 주목받고 있다. 만약 '아바타'와 같은 메가 히트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3D 극장영화 시장규모가 전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는 3D 극장영화 시장이 '반짝 히트작'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Source

1.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Theatrical market statistic 2010', 2010
2. Screen Digest, 'One Fifth of US Box Office From 3D', 2011.1